

# 너를 사랑

MARSA KOREA | 2016 09  
MAGAZINE 창간호

“우리 바다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  
한국해양구조협회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



# 질병예방의 최선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 면역력 강화 식품은?

검색

우리나라 청정해역에서  
우리 대형선망어선이 직접잡은  
고등어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 오늘 저녁 밥상은 「고등어」 어떠세요!!

대한민국 90%이상의 고등어가 대형선망어선에서 공급한다는 사실!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  
Large Purse-Seine Fisheries Cooperative

[www.sunmang-suhyup.co.kr](http://www.sunmang-suhyup.co.kr)

상호금융영업점 안내

본 점 T. 051-254-9011~5  
괴정지점 T. 051-201-1833~5

토곡지점 T. 051-757-4451~2  
개금지점 T. 051-892-7171~2

장산지점 T. 051-783-8042~3  
구남지점 T. 051-711-9011~3





#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소개합니다!

## 설립목적

(사)한국해양구조협회는 해양에서의 재난과 사고의 예방·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교육훈련과 대국민 홍보 활동, 기술·제도·문화 등의 연구개발,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해양 구조·구난 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통해 사회와 국

## 가치



### 용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 거친 바다에 맞서되 자연 앞에 겸허한 자세를 가진다.



### 봉사

근면성실한 자세로 헌신하며, 항상 자부와 긍지를 기른다.



### 환경

자연은 하나의 생명임을 인식하고 조화로운 삶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 사업

-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 해양사고 예방·대응, 해양환경보전, 기타 해양안전을 위한 민간해양구조대 운영 및 국내외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수색구조·구난업무와 기술에 관한 교육, 조사, 연구, 개발, 자문과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수색구조·구난, 해양안전 등 업무관련 장비개발과 조달·안전검사, 품질인증, 자본의 조달 및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 해양안전과 인명구조·구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명구조, 응급구조, 구조잠수 등 해양안전 교육훈련사업
- 회원의 권익보호, 복리증진 및 후생에 관한 장학, 상조, 공제사업
-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위 각호와 관련된 도서, 도화 및 영상물 제작과 출판 캐릭터 사업
- 기타 수난구조법 및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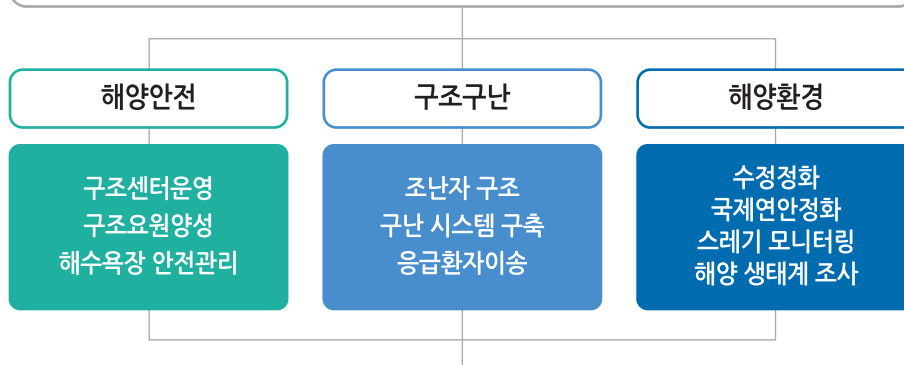


대표번호 032-832-0122 | FAX 032-832-5122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용당동)

## 마스터 플랜

### 국가 해양안전 및 선진 구조구난 체계 구축

(수상안전확보 및 구조지원 해양환경보전 봉사문화 확산)



- 국제 수준의 리더십과 혁신적 조직운영
- 시민참여 구조구난 거버넌스 체제 정비
- 생명 존중 공동체를 향한 사회 자본과 사회적 지원 형성



신정택  
한국해양구조협회 총재

바다는 삶의 터전이자, 휴식과 놀이의 공간이면서 국가 간의 산업을 일으키는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열강들은 이제 대륙을 넘어 바다를 21세기의 동력으로 삼고자 끊임없이 경쟁하며 바다를 통한 세력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레저와 물놀이 인구의 증가에 따라 해마다 1억 명 이상이 바다를 찾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인명사고는 줄지 않고 있고 국민들에게 바다는 위험하고 안전에 소외된 장소로 오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권역별로 해양특수구조대 설치와 더불어 해양사고대응 골든타임을 설정하고 각종 해양 안전정책과 민간 해양구조 활동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 또한 금년에도 전국 40개소에서 연인원 5,000여명의 대원이 하계인명구조센터를 운영하면서 인명사고 예방과 해양안전 계도활동을 실시함은 물론 특히 선진해양구조체계인 해양경찰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해양안전의식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조직체계의 변화와 혁신을 꾀하고자 이사장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내실 있는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직에 변화를 주었고,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본회를 해양특별시 부산으로 이전하여 해·수산 단체 및 임원진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이룰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는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수상구조법의 개정을 통한 국가예산 지원, 회원들의 복지향상과 지원대책, 명예회복 등은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할 현안들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응원을 지렛대 삼아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회원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모두가 안전하고 명예롭게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회원 그리고 바다를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정담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들의 활동상과 소망을 담은 소식지 **너울사랑**을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활동상, 알리고 공유해야 할 소식들, 구수한 삶의 이야기, 제도 및 법령안내, 국민안전을 위한 해양상식 등 다양하고 알찬 구성으로 여러분들을 찾아 뵙겠습니다.

**너울사랑**의 창간을 계기로 대외적으로는 대원들의 활동상을 널리 알리고 대내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소통하고 화합함으로써 더욱 단결된 봉사단체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너울사랑**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수많은 봉사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퍼트리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땀과 열정과 패기로 꾸며질 **너울사랑**에 많은 성원과 박수를 부탁드리며, 우리를 기억하는 위대한 유산으로 남기길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 축사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존경하는 한국해양구조협회 신정택 총재님, 그리고 협회 회원 여러분!

한국해양구조협회 소식지 ‘너를사랑’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동북아 물류의 중심인 해양수도 부산으로 본회 사무실 이전을 축하드립니다. 해양에서의 민·관 협력 선진형 수난구조체계 구축을 위해 해양구조협회가 창립된 지도 올해로 4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간 해양경찰과 함께 해양사고 예방활동과 구조지원 등 해양안전 확보에 수많은 공헌을 해 주신 것에 대해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설립된 이래 조직발전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지속적인 조직혁신과 협회 활성화를 통해 해양에서 없어서는 안될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해양안전의 ‘파수꾼’으로서 당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지 면적의 약 4.5배에 이르는 광활한 해양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사고를 국가기관 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누구보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국민소득 증대와 주 5일 근무제 정착으로 바다를 찾는 해양관광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어느 때보다 해양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경찰은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사고 예방·구조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국민참여·협력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현장에서 민·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해양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 설립근거 법령인 「수상구조법」 개정을 통해, ‘민간해양구조대 관리’를 해양구조협회 업무로 추가하고 회원자격을 확대하여 활동기반을 확장하였으며, 민간해양구조대원 활동에 대한 지자체 ‘지원 조례’ 제정과 해양구조협회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해양경찰은 민·관 협력강화는 물론, 부단한 소통과 심도있는 고민을 통해 현장에서의 구조업무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한국해양구조협회가 국민으로부터 더욱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국해양구조협회 회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이지만,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올해를 ‘100년 조직’으로 나아가는 원년으로 삼아, 해양경찰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가는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창간하는 소식지 ‘너를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열망과 노고로 탄생한 만큼 앞으로 회원 여러분들 간 소통과 화합의 매개체로 자리매김하여 해양구조협회가 더욱 단결하고 하나된 조직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 번 송고한 정신과 헌신적인 노력을 보여주신 한국해양구조협회 신정택 총재님을 비롯한 한국해양구조협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6년 9월



총재동정

# 100호 아너소사이어티 약속 지킨 신정택 총재



▶ 사진출처 = 조선닷컴  
맨 앞줄 왼쪽 신정택 총재 (세운철강 회장) / 맨 뒷줄 왼쪽 김성태 수석부총재 (동일조선 회장)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에 소속된 11명의 기업인들이 7월 15일 부산 영도구 목장원에서 동시 가입하는 행사를 가졌다.

지난해 6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새로 취임된 부산 공동모금회장 신정택 총재와 이장호 전 회장은 “부산지역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가 부산 아너소사이어티 100번째 회원으로 동시 가입하자”고 약속하였다. 1년이 지난 뒤 마침내 총 11명의 기업인들이 뜻을 같이하여 동참하였다.

이들의 기부금은 결손 가정 또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생계형 복지 지원과 함께 장학금 지급, 멘토링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지원, 직업 체험 등과 다문화·새터민 가족의 자녀들을 위한 문화체육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신정택 총재 등 가입 기업인들은 “부산지역 어린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끼니를 거르거나, 소외나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손을 내밀어주고 싶었다”며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어른인 우리들의 도리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을 모았다.



#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이전 현판식 개최 제10차 이사회도 열려



◀ 왼쪽부터 우예중 부총재(부산항만공사 사장), 박인호·이승규 대표(부산항발전협의회), 신정택 총재(세운철강 회장), 오상권 안전총괄부장(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박범식 부총재(한국선급 회장), 김성태 수석부총재(동일조선 회장), 민흥기 이사장

우리협회는 지난 7월 13일, 부산 용당동에 위치한 새로운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2013년 1월, 해양선진국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힘차게 출발하였고, 출범 이후 해양경비안전본부(인천)에 상주하면서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약 3년 6개월 간의 인천시대를 마무리하고 지난 6월 20일, 동북아 해양수도인 부산으로 본부를 이전하며 제2의 도약을 선언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협회 신정택 총재(세운철강 회장)를 비롯하여 김성태 수석부총재(동일조선 회장), 오상권 안전총괄부장(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우예중 부총재(부산항만공사 사장), 박범식 부총재(한국선급 회장)등 약 80여명이 참석하여 부산이전을 축하하였다.

연일 비 소식에 걱정이 앞섰지만 다행히 현판식 당일은 화창한 하늘아래 신정택 총재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신정택 총재는 “비록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더욱 창대해질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 오른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크게 부응하고자 하는 책임감도 동시에 생긴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우리협회가 더욱 활성화 되고, 회원들의 숭고한 봉사정신이 제대로 평가되어 선진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념사를 하였다.

축사는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오상권 안전총괄부장이 맡았다. “그간 한국해양구조협회는 해양경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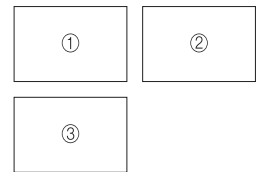
함께 해양사고 예방활동과 구조지원 등 해양안전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도 많았다. 이번 자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더 신뢰 받고 나아가 100년 조직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해양경찰도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축사를 마무리하였다.

이후 현판 제막식이 진행되었고, 팡파레가 울리며 폭죽이 터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본격적인 부산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 ① 기념사중인 신정택 총재
- ② 현판식에 참석한 내빈들
- ③ 현판식 후 리셉션



### | 제10차 이사회



현판식 행사에 앞서, 오후 1시 30분부터 제10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제10차 이사회는 재적 46명 중 29명이 출석하였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제50호 ‘임원변경의 건’, 제51호 ‘지부설립 및 협회장 선임의건’, 제52호 ‘정관 및 규정 개정’, 제53호 ‘구조대 설립의 건’ 등 총 4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제50호, 제53호 안건은 수정가결, 제51호와 제52호는 원안가결 하였다.

#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전국 각 지역 안전박람회 참가

우리협회는 올 한해 상반기 총 6개의 행사 및 박람회에 참여하며 해양안전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대구EXCO에서 열린 『제13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서 해양안전 체험관을 운영하며 안전한 물놀이방법과 같은 해양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실제 좌우, 전후로 움직이도록 작동되는 모형선박을 설치하여 침몰, 화재, 좌초 시 선박사고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운영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 선박안전체험을 하기 위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기도 했다.



▶ 제13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선박안전체험을 하기 위해 몰려든 아이들

행사 종료 후 국민안전처는 자체평가를 통해 이번 박람회는 소방산업해외진출 다변화를 추진하고 참관객 중심의 효율적 프로그램 구성으로 진행하여 역대 어느 박람회 보다 성공적으로 치러진 행사로 평가하였다.

▶ 제2회 대한민국 해양안전엑스포 구명조끼를 이용한 인명구조 체험중인 시민들







같은 날 부산에서도 『제2회 대한민국 해양안전엑스포』가 부산BEXCO에서 개최되었다. 우리협회는 홍보부스를 열어 대국민 해양안전 캠페인에 동참하며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열린 『제3회 국제해양 안전장비 박람회』에 참가하였다.

▶ 제3회 국제해양 안전장비 박람회 매듭묶기 체험을 하고 있는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신임순경 / 심폐소생술(CPR)체험중인 시민들



박람회 기간 동안 우리협회는 실제 마케팅을 활용한 홍보압박, 인공호흡 등과 같은 심폐소생술(CPR) 체험과 위급상황 시 구조에 사용되는 ‘파라코드’를 이용한 매듭묶기 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진행하였다. 3일 동안 협회부스는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매듭묶기 체험에 사용되었던 파라코드 로프가 금세 소진되기도 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우리협회는 해양 인명구조용 드론을 제작하는 (주)숨비와 함께 ‘해양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업무제휴’를 맺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앞으로 구조활동에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구조기법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밖에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던 『제5회 어린이 안전짱 체험 박람회』,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6회 튼튼쑥쑥 어린이 안전·건강 박람회』 등 전국 각 지역의 안전 박람회에 참여하며 해양안전과 관련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함께 진행을 맡은 서울지부(김상철 협회장)는 “이러한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인식을 변화시키고 사고를 예방하는 등 해양안전 선진국가로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 제6회 튼튼쑥쑥 어린이 안전·건강 박람회

▲ 제5회 어린이 안전짱 체험박람회

## 선진 해양구조체계 구축을 위한 제9차 정기이사회



지난 2월 24일 부산 목장원 소회의실에서 제9차 정기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는 우리협회 신정택 총재(세운철강 회장)를 비롯해 김성태 수석부총재(동일조선 회장), 조명래 부총재, 민홍기 이사장(부총재), 조동길 부총재(세화수산 대표), 장만 부총재(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등이 참석했고, 총 17명의 이사진도 함께 하였다.

이날 신정택 총재는 “정부에서도 해양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각종 해양안전 정책과 민간해양구조 활동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어 협회의 역할과 미래는 밝다”고 전망하였다.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과 대응력을 강화하고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어 더욱 효율적인 운영과 조직발전을 위한 고견들을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사회 주요사항들을 보면 직제 신설 및 임원 선임과 변경,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과 민홍기 이사장(부총재)를 신설되는 ‘이사장’ 후보로 지명하고 대의원 총회에 상정하기로 심의의결 하였다. 이번 이사장 제도 도입을 통해 임원진과는 보다 밀착되고 지역 조직과는 신속한 현안해결과 소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2016년 정기총회 개최



같은 날, 2016년 정기총회도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사진들과 각 지역 협회장 및 지역대장, 대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주요안건으로는 ‘정관 일부 개정(안)’, ‘임원 변경 보고 및 선임(안)’, ‘15년도 감사보고서 채택 및 결산’, ‘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등이 상정되었고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





이날은 전국 각 지역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해상에서의 인명구조 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한 유공자들에게 표창 및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 | 수상자명단

- **단체표창** 최우수지부 경남동부지부, 최우수구조대 완도구조대, 우수구조대 경주구조대
- **기여대상** 한창범(삼원중공업 대표이사), 이강덕(포항시장)
- **공로패** 최계열(울산 前 협회장), 김순동(전남남부 前 협회장), 이승우(전북 前 협회장), 이일수(충청 前 협회장), 강신보(서귀포 前 협회장), 최 훈(완도 前 대장), 조평호(경남본부 前 대장), 박경섭(강진 前 대장), 신성규(거창 前 대장), 강성원(완도 前 대장)
- **감사패** 노웅래 의원(마포갑 국회의원)
- **국민안전처장관표창** 한동교(전북지부), 정유진(보령구조대), 김복수(포항구조대), 김경진(부산구조대), 송경철(연예인구조대)
- **개인표창**
  - 1) 구조대  
조세희(원주구조대), 김남호(속초구조대), 홍준호(양양구조대), 변천수(부산구조대), 김석암(진해구조대), 김종식(창원구조대), 조희영(마산구조대), 한승재(마산구조대), 김태균(통영구조대), 장용석(통영구조대), 윤병기(진주사천구조대), 박근영(거제구조대), 고귀성(여수구조대), 김병희(여수구조대), 김문규(고흥구조대), 이정환(완도구조대), 안순남(강진구조대), 박선문(강진구조대), 강정두(나주구조대), 최영태(정읍구조대), 문노희(부안구조대), 이용희(충청지부감사), 김중진(보령구조대), 김경직(보령구조대), 여성진(제부구조대), 김경수(용산구조대), 명유천(영등포구조대), 양세환(성동구조대), 최연순(마포구조대)
  - 2) 구난대  
신진용(전북구난대), 조장현(전북구난대), 추은철(창원구난대), 김진구(인천구난대)
  - 3) 봉사대  
최미영(창원봉사대)

## 전국 협회장 워크숍 개최



지난 3월 31일  
창원 진해요트스쿨에서  
경남동부(창원)지부의 주관으로  
전국협회장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민흥기 이사장을 비롯한 조명래 부총재, 각 협회장 및 지부 관계자 등 총 18명의 협회인사들이 참석하였고 해경에서는 김영모 창원해경서장, 각 해경서 경비구난계장 등 12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활성화 지부 우수사례 발굴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지부활성화와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및 현안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특히 모범사례 발표에서는 경남동부(창원)지부의 지자체 예산지원과 관련해 지부는 지금까지 지자체 담당자와 꾸준한 유대관계를 지속해 오며 예산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등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사례들을 발표하였다.

이어 전남동부지부의 조직관리 운영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고, 세월호 사고 직후 시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해온 전남동부지부는 전남대학

교 해양경찰학과와 업무 협약(MOU)을 맺는 괄목할 만한 성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협약을 통해 '찾아가는 학교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북지부의 민·관 협력모범사례에서는 상황실 및 안전센터, 122구조대간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민·관·군 합동훈련 정례화 및 어선사고 예방 합동점검 등의 실시 에 대해 발표하였다.

본회에서는 우수지부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각 지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지부 운영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또한 협회장 공식 등의 사유로 비활성화된 지부는 관할 해경서장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교육 및 부표사업은 지부 활성화를 위해 수행능력을 갖춘 지부에 이관예정이라고 밝혔다.





# 구조현장 역량 강화를 위한 2016년 전국 지역대장 간담회

## - 협회 창립 후 최초, 오찬도 가져

우리협회는 지난 5월 28일, 대전에서 2016년 전국 지역대장 간담회를 개최, 전국 각 지역대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전국에서 12명의 구조대장들과 봉사대장 1명, 그리고 4명의 본회 임직원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본회와 지부의 역할과 현재 각 지역대 활동과 관련된 불편사항 등을 논의하고 조직운영에 대해 폭넓은 검토와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논의사항은 크게 조직관리, 해양구조, 해양안전, 행사로 총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질의응답 하였으며, 먼저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지부를 설립한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부는 본회를 대신하여 지역대를 관리하고 지역대와 본회와의 가교역할, 지역대와 해양경비안전서와의 일관성 있는 창구역할이 첫째이며, 나아가 지자체(기초 또는 광역)와 연계하여 각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지부가 지역대의 활동을 저해·위축시키거나 불필요한 간섭 등은 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해양구조분야에서는 광역별 지부 및 지역별 특수구조대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현재 몇몇 지역에서 특수구조대가 자체적으로 창설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회 차원의 지부별 또는 광역별 특수 구조대 창설여

부 등은 추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사항임을 알렸다.

해양안전분야에서는 금년도 인명구조센터에 대한 활동복 지급문제와 일선대원과 해경과의 협조문제에 대해 논의되었다. 우선 인명구조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물품은 활동복 및 공용 레스큐튜브이며 이는 한국선주협회의 기부금을 통해 제작되어 지역대별 인명구조센터 운영계획서 수령 후 지급예정이라고 알렸다. 또한 해경과의 협조문제와 관련해서도 해경본부나 일선 해경서를 통해 협회와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많은 질의응답들이 오갔으며 오찬을 겸한 이날 간담회는 약 4시간동안에 걸쳐 진행되었다. 금번 간담회를 통해 본회는 전국 지역대와의 논의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협회운영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기적으로 전국지역대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대와의 소통을 통해 협회발전을 견인해 나갈 방침이다.

후반기 간담회는 10월~11월 경 개최예정이다.



## 전북지부, 5월 7일 수상사고대비 체험행사 열어

우리협회 전북지부가 지난 5월 7일, 은파호수 물빛다리 광장에서 수상사고 대비 대국민 체험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군산대학교와 군산해경서, 군산해수청 등 바다 관련 관계기관 등이 참여해 인명구조훈련을 펼쳤고, 해경의장대·관현악단 공연, 구명 뗏목 탑승 생존체험을 비롯해 선박안전비품 전시, 선박모형접기 체험, 물놀이 안전교실, 해양경찰제복 체험, 수상오토바이 포토존을 진행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수상안전 대국민체험행사장 주위로 사진전을 열어 실제 현장에서의 구조 모습 등이 담겨 있는 사진들을 전시하며 국민들에게 수상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김상겸 전북지부 협회장(석도국제훼리(주)대표)은



▲ 인명구조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전북지부

“물의 도시 군산,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란 슬로건으로 펼친 이번 행사는 선진화된 구조·구난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시연하고 다양한 사고사례 중심의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수상안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했다”고 전하였다.







# 전국 지부협회장 취임식

## | 충청북부지부 협회장 취임식

지난 8월 23일 충남 태안군 남면 청포대 해수욕장에서 충청북부지부 협회장 취임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충청북부지부 회원들을 비롯해 성일종 국회의원, 도기범 태안해안경비안전서장, 김현표 태안군 부군수, 이용희 태안군의회 의장, 양해승 태안해안국립공원, 태안군 관내 해수욕장 변영회장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총 132명의 회원을 확보한 충청북부지부는 수상오토바이 12대와 각종 인명구조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충청북부지역의 해양안전을 위해 수색·구조·구난·교육·해양환경정화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승민 충청북부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생업에 전념하면서도 봉사과 사명감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궁지로 여기겠다”며 “자긍심을 갖는 개별회원들이 뭉쳐 역량을 강화

하고 의지를 다져 ‘안전관광 그리고 태안’의 슬로건에 맞는 충청북부지부가 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민홍기 이사장은 “해상에서의 안전관리와 구조활동은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매우 절실하면서도 가치있는 과제로 다가왔다.”며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이 행사는 바다에서의 민·관협력은 물론 봉사와 헌신을 바탕으로 안전한 바다, 희망의 바다, 행복한 바다를 이곳 태안 지역민 모두에게 선물하겠다는 우리협회와 충청북부지부의 힘찬 다짐이자 선언이라 믿어도 좋을 것이다”라며 격려사를 하였다.

이어서 김현표 태안부군수, 도기범 태안해경 서장, 성일종 국회의원이 신임협회장 취임을 축하하여 행사를 빛내주었다.



## | 서귀포지부 재창립 및 협회장 취임행사

지난 7월 27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대강당에서 우리협회 서귀포지부 재창립 및 협회장 취임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민홍기 이사장을 비롯해 서귀포지부 강두영 협회장, 이평현 제주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이명준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장, 이중환 서귀포시장, 윤춘광 부의장 등 총 160여명의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었다.

서귀포지부는 지난 2013년 4월 '제주남부지부'로 출범하였으나 2015년 광역단위 지부개편 계획에 따라 '제주지부'로 통폐합(해산)되었다가 2016년 초, 효율적인 조직운동을 위해 분리운영이 결의되면서 재창립하게 되었다.

강두영 서귀포 협회장은 “그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민·관이 협력하여 일치된 구조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이어 이평현 제주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의 축사에서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해양사고에 대응하는

신속한 구조체계확립은 해양경찰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제주특성에 정통한 지역구조협회와 함께 제주지역 해양재난안전망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 해양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해양경찰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민홍기 이사장으로부터 지부 깃발을 전달받은 강두영 협회장은 “봉사!”라고 힘차게 외치며, 서귀포시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서 책임질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였다.





## | 제주지부 협회장 취임식

지난 7월 27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대강당에서 우리협회 서귀포지부 재창립 및 협회장 취임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민흥기 이사장을 비롯한 이동현 신임 협회장, 김용범 제주해양경비안전서장, 서부원 경비구조과장 등 총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제주지부는 2013년 ‘제주북부지부’로 출범하여 2015년 광역단위 지부개편 계획에 따라 서귀포지부와 통합되면서 ‘제주지부’로 통합 운영되었으나 2016년 초, 다시 서귀포지부와 분리운영하기로 의결되면서 제주 북부 지역의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동현 신임 제주협회장은 제주조선 대표이사와 제주요트협회 이사를 역임 중이며, 다각적으로 제주해양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동현 협회장은 취임사에서 “비록 작은 조직으로 제주지부의 시작을 알리지만, 알차고 견고한 조직으로 발전시켜 제주지역 해양안전문화에 일조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 전국 구조대 발대식 현장

## | 경남동부지부 특수구조대 발대식

지난 8월 27일 경남 창원시 진해해양레포츠스쿨에서 경남동부(창원)지부 특수구조대 발대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중 경남동부지부 협회장과 백덕호 아름다운공동체 회장, 박춘덕 시의원, 경남동부지부 임직원 및 구조대원 등 총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었다.

금번 특수구조대 발대식으로 경남동부지부는 지부산하 총 4개의 구조대를 구축하게 되며, 앞으로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구조·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지원태세 유지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김성중 협회장으로부터 구조대 깃발을 받은 정승윤 대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MARSA NEWS | 지부/지역대 뉴스 |

## | 울산남구구조대 발대식

지난 7월 27일, 울산해양경비안전서 대강당에서 울산남구구조대 발대식이 열렸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와 울산지부는 항·포구 수중정화활동과 물놀이 안전교육 등 민·관 협력체제를 공고히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해양안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울산남구구조대 출범은 울산해경서와 울산지부 간의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울산해양경비안전서 정봉훈 서장은 울산 해역 수색구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울산남구구조대 임원으로 활동하게 될 최진식, 유점숙 대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남구구조대장으로 임명된 김채학 대장은 취임사를

통해 “남구 장생포를 포함해 울산 바다는 어린 시절부터 늘 헤엄치고 놀던 바다다. 앞으로 구조대장으로서 남구 해양환경개선과 안전한 바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 장흥구조대 및 전남특수구조대 발대식

7월 5일 전남 장흥에서 한국해양구조협회 장흥구조대(대장 백경동) 및 전남특수구조대(대장 강성원) 발대식이 열렸다. 장흥구조대는 2014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공식적으로 2년만에 출범하였다.

장흥은 지역의 특성상 33개의 크고 작은 어항과 11개의 섬이 있는 곳으로 활동하는 어민들이 해양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만큼 해양에서의 재난과 사고 예방에 교육훈련과 홍보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현재 인명구조 및 스쿠버 다이빙, 재난안전강사 등 전문인력 31명이 배치되어 있는 장흥구조대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와 수문리 해수욕장에서 여름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으로도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훈련과 교육을 강화하여 대원을 점차적으로 늘리고 지역사회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학생 대상의 심폐소생술 교육, 환경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청정지역 장흥을 보호하는 장흥구조대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고 알렸다.





# 전국 각 지역 구조대장 이·취임식 열려

## 통영구조대 취임식 쌀, 라면 기탁

우리협회는 해양안전·구조·환경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다.

통영구조대는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기 위해 통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구조·안전 및 환경과 관련된 행사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도 훈훈한 소식을 전해 왔다. 지난 3월 3일, 통영구조대 장종철 대장의 취임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가 뜻 깊었던 것은 많은 인사 분들의 축하 화환을 쌀과 라면으로 대신하여 다음날 3월 4일, 통영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전달하며 그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다.

장종철 대장은 “잠시 축하 받고 사라지는 꽃보다는 이웃에게 따뜻한 밤 한끼를 제공할 수 있는 쌀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며 “취임을 축하해 주기 위해 라면과 쌀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 완도구조대 제10대 대장 이·취임식 / 강진구조대 제7대 대장 이·취임식

완도구조대와 강진구조대는 지난 2, 3월 차례대로 대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최훈 완도구조대 이임대장과 박경섭 강진구조대 이임대장은 그 동안 수상안전활동과 수중정화활동 그리고 지역사회 축제에 적극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자원봉사단체로서의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다져왔다. 신임 완도구조대 김정환 대장과 강진구조대 신선배 대장은 지휘자 견장을 수여 받고 구조대 깃발을 전달받아 힘차게 흔들며, 앞으로 지역구조대장으로서의 각오를 다짐하였다.



▲ 완도구조대 제10대 대장 이·취임식장면



▲ 강진구조대 제7대 대장 이·취임식장면





## 안전을 부탁海



2013년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서 발행한 백서에 의하면, 해양사고에서 구조된 인명은 2009년부터 연간 5천 명 정도에서 1만 명으로 2배 가까이, 사고 선박수도 연간 700척 부근에서 1,600척 정도로 2배 이상 늘어났고, 가장 최근 집계가 작성된 2012년까지 그러한 추세가 지속되었다. 해양사고의 증가 원인으로는 기상여건 악화, 선박의 노후화, 선박 정비불량, 선원의 고령화 등이 지목되었다. (출처·위키백과) 날로 증가하는 전국 각종 해난사고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 이처럼 안전사고는 현장에서의 사전예방과 사후 대처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협회는 해양안전사고예방 및 사고발생 후 대응방안으로 전국 해양경비안전서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민간구조 활성화 도모와 신속한 구조체계확립 등을 논의해 왔다. 올 상반기는 전남동부지방과 여수해양경비안전서 간담회, 보령해양경비안전서의 한국해양구조협회 활성화 간담회,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의 지방연안사고 예방 협의회,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민·관 협력강화 간담회 등을 진행하면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관련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 보령해양경비안전서  
한국해양구조협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진행
- ◀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주관  
민관수색구조협력 간담회 진행

이러한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주제들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구조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군 합동구조훈련에 활용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군SSU와 함께한 『MIR-Dive CPX훈련』, 완도구조대와 완도해양경비안



전서가 실시한 『여객선사고 상황대응 합동훈련』, 국민안전처가 주관한 『여객기 해상불시착 대응 현장훈련』 그리고 가장 최근 7월에 진행되었던 통영해양경비안전서에서 주관한 『인명구조훈련』 등 수 차례의 민·관·군 합동구



완도해양경비안전서 주관 민간 구조역량강화 합동훈련 ▲



미르기관 수중 수색구조현장 합동훈련 ▲

▶ 통영해양경비안전서 주관 인명구조훈련



구조역량강화를 위한 훈련활동은 전문구조기술을 습득하여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해양사고에 우리협회 전국 지부 및 구조대는 이러한 훈련활동의



▶ 통영구조대 김태정 구조대원이 통영해양경비안전서 박재수 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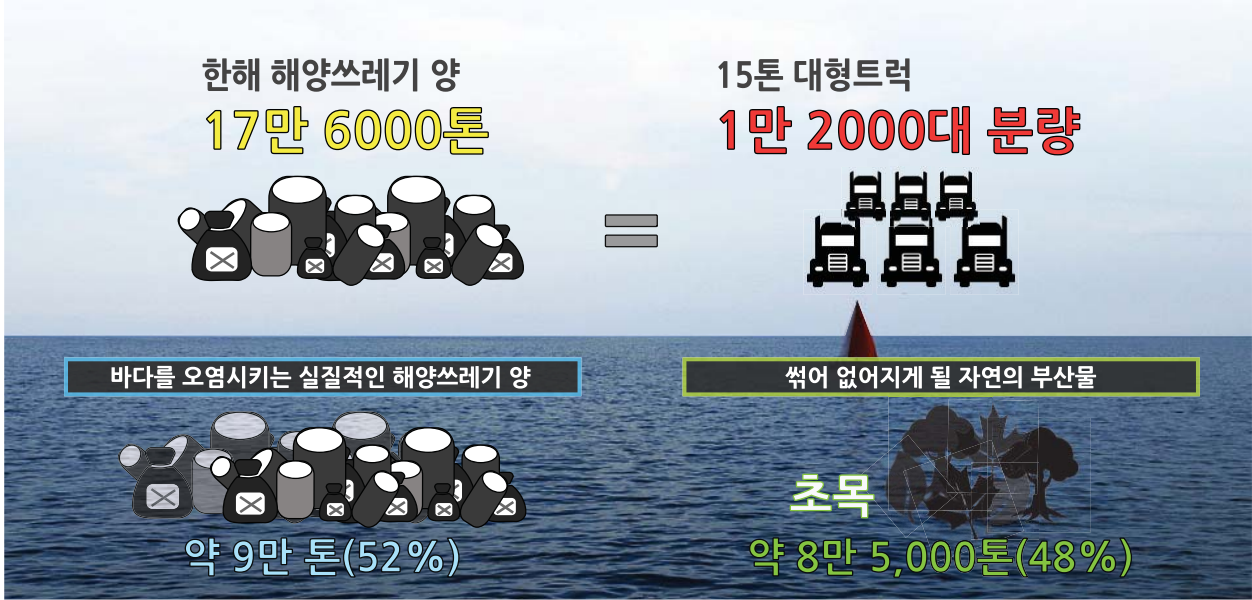
지난 1월 31일 창원시 진해구 합계 해안에서 미역을 따다 실종된 것으로 보이는 70대 할머니 K씨를 찾기 위해 창원구조대 유남진 구조대원이 동참하여 수색작업을 벌이면서 지원활동에 나섰다. 또한, 강진구조대에서도 가우도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하면서 실종자를 수습한 일도 있었다. 3월 20일에는 통영시 산양읍 곤리도 인근 해상에서 예인 중이던 550t급 바지선이 전복되는 사고로, 통영해양경비안전서의 구조협조 신고를 받은 통영구조대 김태정 구조대원이 바다에 빠진 선장을 구조하였다. 이 구조활동으로 통영해양경비안전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우리협회는 해양안전경비서와 함께 안전사고를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안전인식전환 및 사고대처방법 등 해양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구조역량강화와 구조체계확립을 위해 간담회와 각종 훈련들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 각 지부 및 구조대에서는 해양에서 일어나는



# 환경을 부탁海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 한 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양은 얼마나 될까?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바다에 버려지는 해양쓰레기는 초목을 포함해 약 17만 6000톤으로 15톤 대형트럭 1만2000대 분량이다. 이중 절반 정도인 7만8000톤만 수거되고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는 가라앉거나 해안가에 쌓여 바다를 오염시킨다.

해수부는 전국 해안가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대략 1만 2000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지역별 쓰레기양과 오염정도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올 한해 해수부가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투자하는 예산만도 무려 165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국내 해양생태계 보존은 해수부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단체 및 시민들의 참여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우리협회는 이러한 국내 해양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전국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청정 바다를 위한 해안정화활동을 오랜 기간 지속해왔다. 2015년, 한 해 동안 해안 수변정화 활동만 전국 2,529명의 인원이 110회에 걸쳐 활동을 펼쳤으며, 항·포구 수중정화 활동에는 1,300명의 인원이 66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올해도 각 지부 및 구조대에서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각종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지난 4월3일 여수구조대는 오동도에서 ‘연합수중정화 행사 및 불가사리 작품경연대회’를 주관하며 오동도 상가 앞 바다 밑에서 수중정화활동을 펼쳤다. 이곳은 유람선 선착장 잔고 시설과 구조물 사이에 붙어 있는 패류들이 많아 인근 바다 밑은 불가사리들이 집단서식 하는 곳이다. 불가사리는 육식성으로 바닷속 이매패와 어패류들을 가리지 않고 포식하여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 천적이 없어 ‘바다의 무법자’라고도 불리며 먹는 양도 많아 바다 생물을 싹쓸이 하는 포식자이다. 최근

국내 바다 곳곳에는 ‘바다 사막화’가 진행되는 ‘백화현상’이 나타나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 불가사리를 방치하게 된다면 바다 사막화 면적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불가사리 퇴치로 인한 수중정화활동뿐만 아니라 채집한 불가사리를 이용하여 작품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 불가사리에 대한 폐해를 알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마당을 펼쳤다. 비가 쏟아지는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구조대원들이 잠수하여 불가사리 채집에 직접 나서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성황리에 행사 마무리 되었다.

여수구조대를 비롯한 우리협회의 각 지부 및 구조대는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매월 해양환경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단체 및 시민들과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 불가사리를 채집하고 있는 구조대원들



▶ 전국 지부 및 구조대의 해양환경정화활동 모습

| 울주구조대



7월 23일, 울주구조대는 울산진하해수욕장에서 수중정화활동을 펼쳤다.

| 거제구조대



6월 26일 거제구조대가 거제일대바닷가 근처에서 해양수변정화활동을 벌였다.

| 남양주구조대



6월 19일 남양주구조대 한강수중수변정화활동 진행하였다.

| 완도구조대



7월 21일 청산도해수욕장에서 완도구조대원들이 해변정화작업을 진행하였다.

| 울산지부



6월 26일 울산항 매암부두에서 울산해양경비안전서 122구조대와 울산지부 관계자들이 페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10t 가량을 수거하였다.

| 진해구조대



6월 11일 진해구조대는 창원시 진해구 안골 물량장 인근연안에서 각종 수중 오염물질 4t을 수거하는 해양수중정화활동을 펼쳤다.

| 부산구조대



부산구조대는 지난 5월 21일 부산시 중구 수협 자갈치시장 공판장 앞바다 및 시장 주변에서 수중정화활동과 자갈치시장 주변 쓰레기 수거활동을 진행하였다.

| 창원구조대



6월 26일 창원구조대 30여명과 해양경합동으로 진해 초리도 바다정화작업을 진행하였다.

| 통영구조대



5월 31일 통영구조대는 바다의 날을 맞아 정화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경남도지사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 강진구조대



5월 30일 강진구조대는 마량항 내 바다정화활동에 나섰다. 수중정화활동에서 선박 3척과 크레인 수거차량 등을 동원했으며 우리협회 회원 잠수사 20명이 4시간 동안 수중에 침적돼 있는 각종 폐어구류와 쓰레기 3톤 가량을 직접 인양, 수거하였다.



## MARSA 인천상륙작전 우리가 몰랐던 영웅들의 이야기



지난 7월 말 개봉한 '인천상륙작전'은 개봉 전부터 톱스타 이정재와 더글라스 맥아더 역을 맡은 리암 니슨의 출연으로 많은 관객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개봉 일주일 만에 400만명을 돌파하면서 줄곧 박스오피스 1위를 수성하며 저력을 과시했다.

영화 '인천상륙작전'은 5000:1의 성공확률, 전쟁의 역사를 바꾼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린 전쟁 액션블록버스터 영화다.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역사적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이번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총사령관 '맥아더'의 영웅담이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 '맥아더'는 이상화된 인물이 아닌 작전 성공만을 기다리는 수동적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결국 감독(이재한)이 영화 속에서 조명하고자 했던 건 해군 첩보부대 대위 '장학수'(이정재)라는 인물을 통해 성공 뒤에는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파도, 강추위와 싸워야 하는 해상촬영현장, 해양안전확보의 주역 “한국해양구조협회”**

지난 3월 9일, 인천 영종도 해상에서 수백 명의 스텝과 배우들이 모여 영화의 결정적인 장면 중의 하나인 ‘미 해병대의 팔미도 상륙’장면을 촬영하였다. 해상촬영의 위험성 때문에 우리협회에 지원요청이 들어왔고 본회 2명, 인천지부소속 구조·구난대원 6명과 선박이 동원되어 촬영중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였다.

해상촬영의 어려움은 물론, 3월 촬영 당시, 영종도 해상은 매서운 꽃샘추위가 엄습하던 영화의 날씨 속에서 촬영이 강행되었으며 많은 스텝들과 배우들은 추위와 싸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현장에 나가있던 구조대원들 말에 의하면 주인공인 배우 이정재는 추운 날씨에도 프로다운 모습으로 진지하게 촬영에 임했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인천착륙간전 촬영현장 ▲▶



해양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협회 구조대원들도 9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추위와 싸우며 촬영이 안전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하지만 서해안의 특성상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사리기간이라 썰물로 인해 선박이 좌초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해상에서의 사고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우리 구조대원들의 도움으로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예정된 촬영을 모두 마무리 할 수가 있었다.



▶ 배우들과 기념촬영 중인 인천지부소속 구조·구난대원들





### 영화와의 첫 인연은 “연평해전” 수중촬영

우리협회가 영화촬영을 위해 안전구조대원으로 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2년 6월, 대한민국이 월드컵 함성으로 가득했던 그 날, 북방한계선(NLL) 남쪽의 연평도 인근에서는 대한민국 해군 함정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제2연평해전’이 일어났다. 북한 경비정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은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가 침몰되었고, 6명의 전사자와 18명의 부상자를 낳았던 이날의 끔찍한 기록들은 2015년, 영화<연평해전>으로 재조명 되었다.

한파가 몰아치던 2014년 12월, 울진해상에서는 침몰된 선박에 갇힌 故 한상국 중사의 인양장면 촬영이 한창이었다. 우리 영해를 수호하려 했던 전사자에 대한 촬영이므로 현장은 엄숙했고 수중촬영 중 행여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긴장감 속에 촬영이 진행되었다.

우리협회에서는 완도구조대 김정환 대장과 포항구조대 김복수 대장이 약 4일간 촬영현장에 투입되어 촬영안전 지원뿐만 아니라 해군SSU의 대역을 맡아 잠수장면, 인양장면 등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 해군SSU대역을 위해 잠수복을 착용한 포항구조대 김복수 대장

### 스포트라이트 없어도 해양안전을 위해 묵묵히 지원에 나서는 구조대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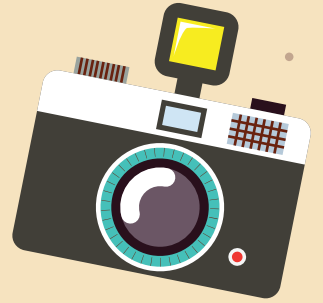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인천상륙작전’은 숨은 영웅들의 노고와 희생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연평해전’ 또한 영화가 아니었다면 모두가 ‘2002년’을 월드컵 4강진출이라는 축제의 한 해로 기억할 뿐, 바다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다 죽어간 젊은 장병들의 숭고한 목숨은 금세 잊혀질 지도 몰랐다. 이러한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에 우리 협회가 조금이나마 참여할 수 있었던 건 행운이고 영광이었다.

이번 촬영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묵묵히 본인의 소명을 다했던 우리 구조대원들 역시, 국가를 위해 전쟁에 출전하는 장병은 아니더라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바다 속을 거침없이 뛰어드는 알려지지 않은 숨은 조력자들이다.

해양에서 일어나는 각종 구조·구난 사고현장에 투입되어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 활동을 하는 우리 구조대원들은 본업도 뒤로한 채 어떠한 대가도 없이 숭고한 봉사정신 하나만으로 임하고 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한 생명이 무사히 구조되는 것만이 그들의 보람이고, 이 일에 투신하는 자긍심이다.

역사 속의 숨은 영웅들, 그들을 잊지 않고자 영화를 통해 재조명 되는 것처럼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생명과 사고 예방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구조대원들의 활동들이 소식지 **너울사랑**을 통해 널리 알려지기를 희망해 본다.





# 전국 구조대 탐방 사진으로 보는 전국 해수욕장 인명구조대원들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해양구조장비 '무인구조정' 시범운영

폭염경보 문자가 몇 차례나 울렸던 올 여름은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휴가철에는 더위를 잊기 위해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한 명의 인명사고가 없는 해수욕장을 만들고자, 우리협회 구조대원들이 나섰다.

지난 8월 5일부터 11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본회 임직원들은 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하계인명구조센터를 방문하였다. 금번 방문을 통해 열악한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는 각 지역 구조대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하였다.

또한 해양안전장비의 고도화를 위해 산업통산자원부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에 참여한 우리협회는 (주)스타크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함께 개발진행중인 무인구조장비의 성공을 위해 각 권역별 해수욕장에서 초기 개발품을 시범운영 하였다.

실제 현장에서의 무인구조정 시연과정을 기반으로 향후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제품개발을 도모함은 물론, 악천후로 인한 구조활동의 제약극복 및 구조활동의 골든타임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내리쬐는 태양아래, 그을려진 피부가 훈장이 되어버린 구조대원들의 활동모습과 무인구조정 시연과정을 사진을 통해 담아보았다.

경주 진리해수욕장  
경주구조대



울산 진해해수욕장  
울주구조대



전남여수 만성리해수욕장  
전남동부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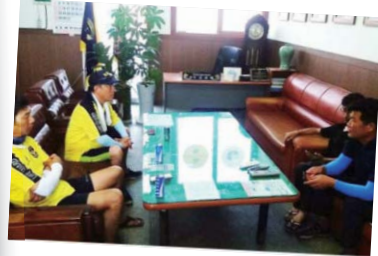
전남 남열리해수욕장  
고흥구조대



전남 수문해수욕장  
장흥구조대



전남 마량항  
강진구조대



충남 대천해수욕장  
보령구조대



전북 격포해수욕장  
부안구조대



강원 사천진해수욕장  
양양구조대







강원 남한강  
원주구조대



경남 건계정  
거창구조대



창원 소고도해수욕장  
경남 동부지부 및 창원구조



경남 학동 및 와현해수욕장  
거제구조대



경북 영일대해수욕장  
경북지부 및 포항구조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구운천일대 계곡  
남양주구조대





# 안전교육

## 2016년 협회주관 교육 현황

우리협회는 해마다 해양안전 사고예방대응을 위한 인명구조요원, 인명구조강사, 재난안전지도사, 해양안전지도사와 같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 상반기(6월까지) 까지 13개의 교육과정을 117회 진행하였고, 참여 인원은 약 10,000여명에 이른다. 본회뿐만 아니라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각 지역의 지부 또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01 상반기 교육 상세현황

#### 인명구조요원

- 해양경찰관 신규 및 갱신교육
- 해양경찰교육원 신임순경 교육
- 민간해양구조대원 신규 및 갱신

#### 재난안전지도사 양성 교육 및 해양안전교육

#### 민간 재난안전 및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 스파밸리클럽 심폐소생술 및 안전교육
- 인천녹색연합 여객선이용 및 해양안전교육
- 환경재단 해양환경 전문강사 과정 해양안전교육
- 다운지역아동센터 해양교육
- 제3회 해양안전장비박람회 '도전!해양골든벨' 해양안전특강

####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재난대응 레벨 2 "잠수기초 특강"

#### 낚시어선업자 전문교육

#### 자체 교육·훈련

- 흑한기 수난대비 합동훈련 및 워크숍
- 협회 전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일반인 과정 교육'



## 02 교육활동모습



◀ 12기 재난안전지도사 1급 교육과정 수료식

◀ 교통문화연수원 교육

## 03 지부·지역대 교육현장 모습



◀ 서울지부 | MOU를 체결한 서울낙시협회의 요청으로 김상철 서울협회장, 김철재 마포구조대장, 최연순 강사, 변이남 강사가 참석하여 낚시를 즐기는 서울시민을 상대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 완도구조대 | 완도 하계해수욕장 안전요원 교육



▶  
통영구조대 |  
민간구조대 심폐소생술 교육



▶  
목포구조대 | 무안초등학교 찾아가는  
물놀이 연안안전 교실



▶  
경남서부지부 |  
거제시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양성



▶▶  
장흥구조대 |  
용산초·용산유아원 심폐소생술 교육







◀ 서울마포구조대 | 공덕역에서 시민들 상대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CPR) 교육, 지역구 국회의원 노웅래 의원참석



◀ 경북지부 | 경북지부와 경주동국대학교 MOU 체결 후, 대학생 인명구조훈련 교육



◀ 부산지부 | 2016 청소년해양안전체험 학습 선상에서 장평중학교 안전교육

해외 뉴스

# 남중국해 영토분쟁

남중국해(South China Sea)는 말 그대로 중국의 남쪽에 위치한 바다로,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및 브루나이 등 6개 국가에 둘러싸인 해역을 말한다. 이 해역에는 크게 난사(南沙, Spratlys,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시사(西沙, Paracels, 베트남명 호양사), 중사(中沙, Macclesfield Bank), 동사(東沙, Pratas) 등 4개 군도가 위치하고 있다. 면적은 350만km<sup>2</sup>에 달하며, 약 280~300억 톤의 원유와 7,500km<sup>3</sup> 가량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몰라카·싱가포르 해협에서 대만해협까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전 세계 해양 물류의 절반 가까이와 원유수송량의 60% 이상이 남중국해를 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원유수송의 대부분이 이 지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남중국해 분쟁 (KIDA 세계분쟁 데이터 베이스, 한국국방연구원)

동해역에 대한 각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자면, 중국은 역사적 권원에 입각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베트남은 지리적 근접성 및 역사적 권원을, 필리핀은 지리적 인접성과 무주지 선점을,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는 지리적 근접성과 대륙붕 관련 해양법협약에 따라서 각각 영유권과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난사군도는 이들 6개국이 당사국이며, 시사군도는 주로 중국과 베트남이 대립하고 있다. 중사군도는 중국, 대만,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동사군도는 대만이 현재 점유하고 있다. 남중국해 분쟁<sup>1)</sup>은 이 중 주로 난사군도와 시사군도에 집중되어 있다.

## 1)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 핵심은 무엇인가?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남해 9단’선은 사진 이미지로 봐서도 남중국해의 80% 이상이 포함되고 있다. 이에 필리핀은 남중국해에 있는 수역과 해저 등에 대한 각 국가의 권리와 의무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의해 결정되는 공표를 구하고자 했다. 재판소는 협약이 남중국해 해역에 대한 해당 사국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을 분명히 하며 이에 따라 중국이 지정한 ‘남해9단선’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 | 중국, 실효 지배하는 섬이 없다.

중국이 2012년 4월 필리핀 함정과의 대치 끝에 스프래틀리 군도 스카버러 암초를 점거한 것이 원인이 되어 필리핀은 상설중재재판소(PCA)에게 판결을 제소했다. 스카버러 암초는 필리핀 해안에서 불과 23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필리핀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있다. 중국은 점거 후 주변 7개 암초 및 환초를 매립해 인공섬으로 만들어 실효지배 했다. 하지만 유엔해양법에 따르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영해 기점은 암초가 아닌 섬만 인정된다. 그러므로 스프래틀리 제도는 섬이 아니므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상설중재재판소(PCA)는 판결했다.

### | 필리핀 주권 침해

필리핀은 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필리핀의 권리와 자유를 방해하면서 협약을 위반했다는 공표를 구했다.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서 필리핀 어선의 조업을 막은 것, 인공섬 건설을 통해 협역 내 환경보호 조약을 어긴 것,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서 중국의 해상경비선이 위협천만한 작전을 펼친 것 등을 필리핀 사례로 들었다. 이에 재판소는 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필리핀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 2)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

중국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PCA 판결이 나온 직후 “남중국해 도서는 예로부터(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라면서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반발하고 있다. 판결 이후, 전투태세 명령까지 내리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3) 미국과 중국의 일축즉발 위기

중국이 판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영유권 분쟁의 숨은 당사자 격인 미국은 판결 결과를 준수하라고 주장하면서 남중국해에 둘러싼 양측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미국무부 대변인 존커비는 성명에서 “국제해양법 조약에 가입할 때부터 이미 당사국들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제 분쟁 조정제 동의를 한 것”이라면서 “이번 중재판결은 최종적이고 중국과 필리핀 양쪽 모두 구속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양 진출의 핵심 지역이자 전세계 해운물동량의 25%~50%가 통과하는 길목이며 중국 원유 수입량의 80%가 이곳을 통과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는 어마어마하다. 미국에게도 이 지역은 매우 중요하며 아시아의 권력 균형을 위해 중국이 영해를 모두 소유하는 것을 막는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필리핀 등의 동맹국들과 군사협력을 통해서 더욱 공세를 가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 4) 남중국해 관련하여 한국의 입장은

최근 우리 상황은 중국의 강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적극 추진-확정하였기 때문에 남중국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한 기술적 고민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중국해 문제가 단순한 영유권 다툼으로만 본다면 우리나라로서는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남중국해 문제에 우리가 개입할 명분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번 일은 단순한 영유권 분쟁이 아니라 해상교통로 확보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제적 이익이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며 외교정치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로서는 입장 표명 등의 관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서해에서 중국과 도서 영유권 다툼은 없다는 점에서 남중국해와 다르지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포함하여 이어도 관할권 논쟁 등 해양경계 확정 과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도 남중국해 문제를 자세히 주시해야 한다.



## 국내 뉴스

# 7월 15일부터 119·112·110 긴급신고전화 통합 전국 시범서비스 개시

14일,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전국 시범서비스 개시  
보고회 개최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7월15일부터 긴급신고전화 통합 시범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14일 오전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주재로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전국 시범서비스 개시 현장 점검 및 보고회를 개최하여 긴급신고전화 통합의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통합시스템을 시연했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는 21개 신고전화를 119(재난 신고), 112(범죄신고), 110(민원상담) 3개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고 편의와 긴급상황 신속대응 및 긴급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추진되어 왔다.

지난 7월 1일 광주, 전남, 제주 3개 시도를 대상으로 1차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전반적으로 시스템과 서비스가 무리 없이 작동됨에 따라 15일부터 전국으로 시범서비스를 확대하게 되었으며 오는 10월 28일부터는 전면적인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 실시된 1차 시범서비스 운영 결과, 긴급신고를 타기관 이관시에 신고자가 반복 설명하지 않아도 되어, 신고가 빨라지고, 한번의 신고로 경찰, 소방, 해경이 함께 대응하게 되는 등 신고 편의와 대응속도 향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동 기간 동안(7.1~7.13) 3개 시범지역(광주, 전남, 제주)에 접수된 총 121,601건의 신고전화 중 대부분이 자체처리(118,388건, 97.4%)이고, 타기관 이관이 753건(0.6%)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신고전화를 재난은

119, 범주는 112 등으로 잘 인식하여 전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긴급전화에 비긴급 상담전화(110)를 건 것은 총 237건으로 전체의 0.2%에 불과하여,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나타내 주었다.

국민안전처는 1차 시범서비스 기간동안 시범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 바 기관간 공동대응 필요시 기존 전화로 내용을 설명하였던 것이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내용을 전달하게 되어 신고처리의 편의성도 좋아졌다.

신고접수체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가 익숙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는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은 2차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에도 24시간 통합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 최적의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관계기관 담당자들에게 “10월28일 전면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국민의 안전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로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출처 : 국민안전처 ]

국내 뉴스

# 여름철 물놀이 사고 원인은?

무더운 여름날씨로 하천, 계곡, 강, 바다 등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물놀이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작년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물놀이 안전사고 분석 결과 지난 5년간(11년~15년) 총 174명(연평균 3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으로는 안전 수칙 불이행(52.5%), 수영 미숙(16.3%), 음주 수영(13.3%), 급류·높은 파도(10.8%) 순이었으며, 장소 별로는 하천에서 53%, 계곡 19%, 해수욕장 13%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계다가 지구 온난화와 엘니뇨 현상 등에 의한 게릴라성 호우로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는 경우가 많아 물놀이 위험성이 더 증대되었다. 특히 하천은 급류나 수심이 급격하게 변하는 등 지형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본격적인 물놀이철을 맞아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는 물놀이 안전사고에 관한 예방 수칙을 알아보자.

물놀이 안전사고 중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다가 추가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특히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무모한 구조를 피해야 한다.

물놀이 도중에 ‘살려 달라’고 장난하거나 허우적거리는 흉내를 내는 경우, 실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장난으로 오인하여 구조를 못 받는 경우도 있기에 절대로 장난해서는 안된다.

껌을 씹거나 빵 등을 입에 물고 물에 들어가 놀다가 기도를 막아 질식사할 위험도 있기에 절대로 음식물을 입에 넣은 채 물속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 | 물놀이 안전수칙 10 |

- 1)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며,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 2)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가야 합니다.
- 3) 수영 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해 줍니다.  
다리에 쥐가 나가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4)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므로 피합니다.
- 5)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야 합니다.
- 6)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 7)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튜브, 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합니다.
- 8)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습니다.
- 9)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 10)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습니다.

물가에서도 다른 사람을 밀거나 장난으로 빠뜨리는 경우 급작스러운 충격에 의해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돌에 머리를 부딪힌다거나 수영을 못하는 사람의 경우 물에 빠져 익사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물가에서는 절대 장난 금지다.

거북이, 오리 등 각종 동물 모양의 보행기처럼 다리를 끼우는 방식의 튜브 등은 뒤집힐 경우 아이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머리가 물 속에 거꾸로 잠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고, 아무리 얇은 물이라도 아이들이 물에 들어갔을 경우 나올 때까지 꼭 지켜보아야 한다.

[ 출처 : 국민안전처 ]



국내 뉴스

# CPR 가이드라인 5년 만에 개정

## 응급의학회, 7가지 주요 개정 사항 공개

심폐소생술(이하 CPR) 가이드라인이 5년 만에 개정됐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지난 4월 14일 열렸던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새로운 CPR 가이드라인의 하이라이트를 공개했다.

그 동안 CPR 가이드라인은 1966년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와 미국과학아카데미가 처음으로 제정한 후, 관련 분야의 연구 결과를 반영해 일정한 주기로 개정됐다.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대한심폐소생협회(이하 KACPR)가 2006년에 처음 제정했다가 2011년에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 10월 심폐소생술 국제연락위원회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사정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 새로운 CPR 가이드라인 하이라이트

	성인	소아	영아
심정지의 확인	무반응 무호흡 혹은 심정지 호흡 10초 이내 확인된 무맥박 (의료제공자만 해당)		
심폐소생술의 순서	가슴압박 - 기도유지 - 인공호흡		
가슴압박 속도	분당 100-120회		
가슴압박 깊이	약 5cm	가슴 두께의 최소 1/3이상 (4~5cm)	가슴 두께의 최소 1/3이상 (4cm)
가슴 이완	가슴압박 사이에는 완전한 가슴 이완		
가슴압박 중단	가슴압박의 중단은 최소화(불가피한 중단은 10초 이내)		
기도유지	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head tilt-chin lift)		
가슴압박대 인공호흡 비율	전문기도 확보 이전 30:2	30:2 (1인 구조자) 15:2 (2인 구조자, 의료제공자만 해당)	
	전문기도 확보 이후	가슴압박과 상관없이 6초마다 인공호흡	
일반인 구조자	가슴압박 소생술		심폐소생술

CPR에 있어 성인과 소아의 기준은 만 8세(만 7세까지 소아)지만, 소아의 체구가 커서 성인과 구분이 어려울 때에는 구조자의 판단에 따라 CPR을 결정하면 된다. 비록 구조자가 심정지 환자의 나이를 잘못 판단하였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 새로운 생존사슬 공개



- 01 심정지의 예방과 조기 발견
- 02 신속한 신고
- 03 신속한 심폐소생술
- 04 신속한 제세동
- 05 효과적 전문 소생술과 심정지 후 치료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련의 단계를 생존사슬(chain of survival)이라 한다. KACPR은 개정된 생존사슬을 공개했다.

새로운 생존 사슬엔 '심정지의 예방과 조기 발견'의 개념이 도입됐다. 이것은 CPR로 인한 생존율은 증가 추세지만, 절대 수치는 여전히 낮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KACPR은 심정지 발생의 예방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 새로운 생존 사슬을 도입했다.

**가슴압박 깊이와 속도의 조정**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의견에 따라 가슴압박방법 중 ‘가슴압박 깊이’와 ‘가슴압박 속도’에 대한 권고가 개정됐다. 가슴압박 깊이는 기존에 영아 4cm, 소아 5cm, 성인 최소 5cm(최대 6cm)였으나,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영아 4cm, 소아 4~5cm, 성인 약 5cm를 권고한다. 가슴압박 속도는 성인과 소아 공통 최소 분당 100회에서, 분당 100~120회로 상한선을 명시했다. 이것은 데이터 결과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값에서 생존율이 가장 높았다. 가슴압박의 위치,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 가슴압박 후 충분한 이완, 가슴압박 중단 최소화에 대한 권고는 기존 가이드라인과 같다.

**일반인은 가능한 인공호흡 없이 가슴압박만 권고**

최근 발표된 다양한 논문에선, 심정지 초기에 가슴압박 소생술만을 한 경우와 심폐소생술(인공호흡과 가슴압박)을 동시에 한 경우에 생존율의 차이가 없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선 가슴압박만 한 경우가 오히려 생존율이 더 높았다. 일본은 이런 점을 반영해 2005년 이후로 가슴압박(Compression-only CPR)만을 커뮤니티(일반인)에 교육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선 일반인이 실제 CPR을 실시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한다. KACPR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 기존의 과학적 근거와 우리나라의 낮은 심폐소생술 보급률을 고려해, 일반인 구조자가 가슴압박소생술만을 해도 좋다고 권고했다.

단, 인공호흡을 정확히 할 수 있고 시행할 의도가 있는 일반인은 인공호흡을 같이 해도 무방하다.(의료인은 당연히 동시 시행)

앞으로 일반인이 예비군 훈련에서 플라스틱 인형에 대고 입을 맞추는 경우가 줄어들지 모르겠다.

**응급의료전화상담원 역할의 중요성 강조**

일반인이 심정지를 확인한 후, CPR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응급의료전화상담원(Dispatcher, 이하 상담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상담원은 전화지도(Guidance)를 통해 일반인 구조자가 심정지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도록 도울 수 있는데, 미국에선 상담원이 실제 911콜을 통해 환자의 의식을 판단해 심정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동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담원이 전화로 지도할 때, 구조자가 CPR을 시작할 확률이 높고 시작까지 소요하는 시간이 단축됐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이런 결과를 반영했으며, 상담원은 신고자가 심정지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훈련돼야 한다.

**기타**

- 전문소생술 중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ET CO<sub>2</sub>) 측정의 유용성 강조 : 심폐소생술의 효율성 평가, 자발순환 회복 가능성의 예측, 기관내 튜브 위치의 확인 과정에서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을 ‘활용’하도록 권장(하지만 Single Predictor로는 권장하지 않음)

-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의 중심체온을 32~34℃로 유지하던 저체온치료에서 목표체온 유지치료(target temperature management) 개념으로 바뀜. (소아에서는 특히 발열을 예방)

※ 목표체온유지치료(target temperature management) : 자발순환회복 후 반응이 없는 성인환자의 중심체온을 32~36℃ 사이에서 목표 온도를 설정한 후 최소 24시간동안 일정하게 유지하는 체온 조절 치료 방법

- 초기 관상동맥 조영술 적응 확장 : 심전도에서 ST절 상승이 없더라도 ACS(Acute Coronary Syndrome, 급성관상동맥증후군)가 심정지 원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시행(기존엔 ST절 상승의 경우에만 권고).

-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는 목표체온유지치료와 관상동맥중재술이 24시간 가능한 병원에서 치료 받을 것을 권고.

- 자동 기계 심폐소생술 장치를 현재 심폐소생술의 대체 방법으로 권장하진 않지만, 구급차나 헬리콥터 등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동안이나 혈관조영술 또는 체외심폐소생술 시행 중에는 고려 가능.

- 통상적인 소생술에도 자발순환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 체외순환장치(ECMO)를 고려하도록 권고.

[ 출처 : MEDI:GATE NEWS 김두환 기자 ]  
(<http://www.medigatenews.com>)



## 협회교육안내

###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 1) 목적

각종 재난·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최근 낚시인의 증가로 인한 갯바위 고립 및 너울성 파도로 인한 추락사고 등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실시

#### 2) 개요

- 기간 : 연중 상설반 운영, 찾아가는 교육 (연중휴무/ 1일 2시간)
- 장소 : 교육 요청지역 내 교육장
- 과정 : 해양안전 및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 대상 : 만 18세 이상 남·녀 누구나
- 교육비용 : 무료
- 문의 : 032-832-0122, 010-3293-1119 김윤섭 부장

#### 3) 교육일정표

No	내용	
1	오리엔테이션 해양사고 및 응급처치 동영상 시청	해양사고 관련 사례안내
2	위급시 행동요령 이론 및 구명조끼 착용법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기연습
3	자동제세동기 실기연습	심폐소생술 실기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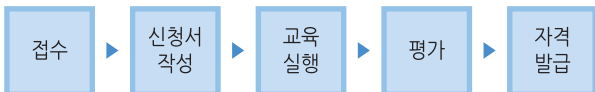
### 재난·해양안전지도사 2급 양성교육

#### 1) 목적

각종 재난·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문화 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및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 있는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함

#### 2) 개요

- 기간 : 연중 상설반 운영, 찾아가는 교육  
(평일반, 주말반, 야간반)
- 장소 : 교육 요청지역 내 교육장
- 과정 : 재난, 해양안전지도사 2급 과정
- 대상 : 만 18세 이상 남·녀 누구나
- 준비물 : 필기도구, 편안한 평상복, 운동화(실기실습),  
사진 2매
- 교육절차



- 교육비용 : 5만원
- 교육비 수납
- 계좌번호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 한국해양구조협회
- 문의(담당자) : 032-832-0122, 010-3293-1119 김윤섭 부장

#### 3) 교육과정

- 재난안전지도사 2급 (16시간)
  - 재난안전의 의미  
(생활안전, 교통안전, 학교폭력, 성폭력, 산업안전 등)
  - 위급시 행동요령(중독, 약물, 상처 및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 해양안전지도사 2급 (16시간)
  - 해양재난의 의미  
(해양안전, 여객선, 유람선, 낚시어선에 승선요령 등)
  - 위급시 행동요령  
(선박을 이용 시 주의사항, 안전수칙, 좌초, 화재 등)
  - 구조구급(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AED 사용법)

#### 4) 평가기준

- 재난안전지도사 (2급)
  - 재난상황에서의 환자 발생 시 초동조치로 생명유지 및 의료기관으로 안전하게 이송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출석 및 태도(10%), 이론검정(20%), 실기실습(70%)
- 해양안전지도사 (2급)
  - 해양사고 발생 상황에서의 신속한 상황전파(119)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유지와 의료기관으로 안전하게 이송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출석 및 태도(10%), 이론검정(20%), 실기실습(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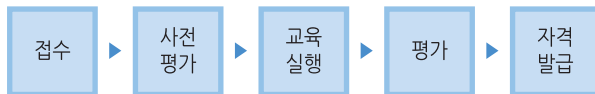
## 인명구조요원·인명구조강사 양성교육

### 1) 목적

해양구조전문 봉사단체로서 해양사고 발생으로 인한 구조·구난 활동 시 대원의 절대적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 있는 구조요원 및 지도자 양성

### 2) 개요

- 기간 : 연중 상설반 운영, 찾아가는 교육(평일반, 주말반, 야간반)
- 장소 : 교육 요청지역 내 실내수영장 및 잠수풀장, 회의실, 강당
- 과정 : 인명구조요원 양성과정, 인명구조강사 양성과정
- 대상 : 만 18세 이상 남·녀 누구나
- 준비물 : - 필기도구, 편안한 평상복, 운동화(실기실습), 사진 2매- 수영복, 수모, 수경, 오리발(수영장용)
- 교육절차



- 교육비용 : 구조요원 15만원, 구조강사 30만원(자격증 발급포함)
- 교육비 수납
- 계좌번호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 한국해양구조협회
- 문의(담당자) : 032-832-0122, 010-3293-1119 김문섭 부장

### 3) 교육과정

- 인명구조요원 양성과정 (40시간 이상)
  -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법, 인명구조법 등 11개 과목 수상일반상식, 인명구조요원 자세, 응급처치, 기본인명구조술 등
- 인명구조강사 양성과정 (60시간 이상)
  -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법, 인명구조법, 교수법 등 15개 과목 수상일반상식, 인명구조강사 자세, 심폐소생술, 장비구조, 교수법 등

### 4) 평가기준

- 인명구조요원 양성과정 (40시간)
  - 교육은 교육신청서, 서약서, 면책동의서, 병력기록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을 접수하여 1차적으로 구조요원 교육 응시 기본자격의 확인과정을 거쳐 기본영범이 되는 자에 한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사전평가는 자유형 50m, 평영 50m 이상, 잠영 10m 완주 가능하여야 하며, 교육 전 반드시 사전 평가 실시하여 합격한 자를 선발한다. (단. 심장, 폐 수술 등 심혈관질환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 위 평가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기본교육과정(11개 과정/40시간)을 교육하며 교육장은 교육과목의 내용에 따라 제한수

역과 개방수역으로 나누어 교육하되, 개방수역 교육 시는 구조선을 이용한다.

- 모든 교육은 교육강사 및 평가관으로 구성하며 교육, 평가를 실시한다. 단, 교육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인명구조강사 1명으로 할 수 있다. 교육인원 편성은 30명으로 하되 인명구조강사 2명, 응급처치강사 1명, 평가관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인명구조요원의 평가는 본 협회 규정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합격기준은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으로 한다.
- 보수교육자(유효기간 만료자)는 신규 교육 시 1일차 또는 2일차 교육에 참여하여 보수교육(8시간)을 이수 후 자격증 갱신 가능. 다만, 유효기간 1년 이상 경과자는 신규교육과 동일하게 교육 수료 후 자격 취득 가능.

※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최종평가에서 합격하지 못한 경우 교육수료일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 재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 인명구조강사 양성과정 (60시간 이상)
  - 교육은 교육신청서, 서약서, 면책동의서, 병력기록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을 접수하여 1차적으로 구조요원 교육 응시 기본자격의 확인과정을 거쳐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한 자(타 단체 포함)에 한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사전평가는 자유형 400m, 핀수영 800m, 잠영 50m 완주, 입영 3분 중량물 6k 인양 가능하여야 하며, 교육 전 반드시 사전 평가 실시하여 합격한 자를 선발한다. (단. 심장, 폐 수술 등 심혈관질환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 위 평가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기본교육과정(15개 과정/60시간)을 교육하며 교육장은 교육과목의 내용에 따라 제한수역과 개방수역으로 나누어 교육하되, 개방수역 교육 시는 구조선을 이용한다.
  - 모든 교육은 교육강사 및 평가관으로 구성하며 교육, 평가를 실시한다. 단, 교육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인명구조강사 1명으로 할 수 있다. 교육인원 편성은 30명으로 하되 인명구조강사 2명, 응급처치강사 1명, 평가관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인명구조강사의 평가는 본 협회 규정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합격기준은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80점 이상으로 한다.
  - 보수교육자(유효기간 만료자)는 신규 교육 시 1일차 또는 2일차 교육에 참여하여 보수교육(8시간)을 이수 후 자격증 갱신 가능. 다만, 유효기간 1년 이상 경과자는 신규교육과 동일하게 교육 수료 후 자격 취득 가능

※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최종평가에서 합격하지 못한 경우 교육수료일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 재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하계활동복 지원

지원품목 : 하계 해수욕장 활동복 800벌, 레스큐 튜브 70개

활동복(전면)



활동복(후면)



레스큐 튜브



## (주)씨유네트웍스(김기창 대표이사), 심폐소생술(CPR)마네킹, 자동제세동기 지원

지원품목 : 교육용 심폐소생술(CPR)마네킹 11개,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11개



## 협회 후원소식

# 7월 13일 사무실 이전 현판식 후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현금

(단위 : 원)

번호	소속	성명	후원 금액
1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부산지부	최상순	200,000
2	재난안전지도사1급	박경애 / 이은종	50,000
3	한국해양구조협회 경남동부협회장	김성중	300,000
4	한국해양구조협회 경북협회장	김태근	300,000
5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협회장	정연송	300,000
6	한국해양구조협회 인천협회장	박경서	300,000
7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남동부협회장	조병중	300,000

### | 화환 및 화분

소속	성명
KOREA P&I CLUB 회장	박정석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제성태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	장인식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치안감	이원희
다윗마린 대표	배현철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	정연송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	임준택
(주)더블유플랜	전현진
도매당 물자조달(DMD) 대표	김정애
(사)부산광역시 장애인청년연합회장	김대현
부산항도선사회 회장	양희준
부산항만공사 사장	우예종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	박인호/이승규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박세영
선진종합(주) 대표이사	박창서
세운철강(주) 회장	신정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 회장	김임권
위니코니(주) 대표이사	박영춘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	송일종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염경두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	이평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이창주
지성회계법인김해지점	도은성
(주)엠티엔지니어링 대표	김철호
창원해양경비안전서장	김영모
(주)탑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한우균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	박상춘

소속	성명
평택해양경비안전서장	임근조
하늘물자조달 대표	이재우
(사)한국급유선선주협회장	문현재
(주)한국선급 회장	박범식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장	정영섭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외국인선원관리지원단장	김행식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오신기
한국선주협회장	이운재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장	이화수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장	김정렬
한국해기사협회장	임재택
한국해양구조협회 경기·충남북부협회장	이강선
한국해양구조협회 경남동부협회장	김성중
한국해양구조협회 경북협회장	김태근
한국해양구조협회 보령구조대장	정유진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협회장	정연송
한국해양구조협회 용산구조대장	김경수
한국해양구조협회 응급분과교육위원	박영선/조재성/김인숙
한국해양구조협회 장흥구조대장	백경동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남동부협회장	조병중
한국해양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한희승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직무대리	김윤해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총재	백석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경영본부장	이지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원장	서병규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치안총감	홍익태

## 협회후원안내

### 1) 월 정기후원 안내

- CMS 출금동의서의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만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은행 : 수협 | 입금계좌번호 : 0101-0122-0122 | 예금주 : 한국해양구조협회

### 2) 특정목적사업 후원

- 구조장비 보급사업, 청소년안전교육, 바다쓰레기 정화활동 등 특정 프로그램에 협찬,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사홍보물에 후원자의 이름, 로고 등을 넣어드립니다.

### 3) 후원회원이 되시면

- 후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와 홍보물을 보내드립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행사에 우선 초대해드리며, 참가비가 있을 때는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 해양안전지킴이로서 보람과 긍지를 돌려드립니다.

### 4) 문의

| 전화 : 032-832-0122 | 팩스 : 032-832-5122 | E-MAIL : marsa122@marsa.or.kr |





# 위니코니(주)

Manufacturer specialized in marine leisure sporting goods.

위니코니(주)는 창립 후 45년 동안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통해 한국 부산본사, 파주공장, 그리고 중국 심천공장 등 3곳의 자체 공장 외 많은 협력업체를 통해 다양한 물놀이기구, 해양안전용품, 해양레저장비, 공기주입식 캠핑용품 등을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서울사무소 및 중국사무소 그리고 미국지사를 기반으로, 전 세계 보다 많은 고객들이 레저 생활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진전해가는 기업입니다.



www.airtoy.co.kr



## ▶ 해양 안전 부표

해양 안전선 표시용 부표, 레저용 부표 생산 뛰어난 가시성



## ▶ 부력보조복

네오프렌, 옥스포드, EVA, PE 등 여러 종류의 레저용 부력보조복 및 구명조끼 생산



## ▶ 스노클세트 / Snokel Set

퍼지 기능을 겸비한 스노클세트  
PVC, 실리콘, PC렌즈, 강화유리렌즈 등 다양한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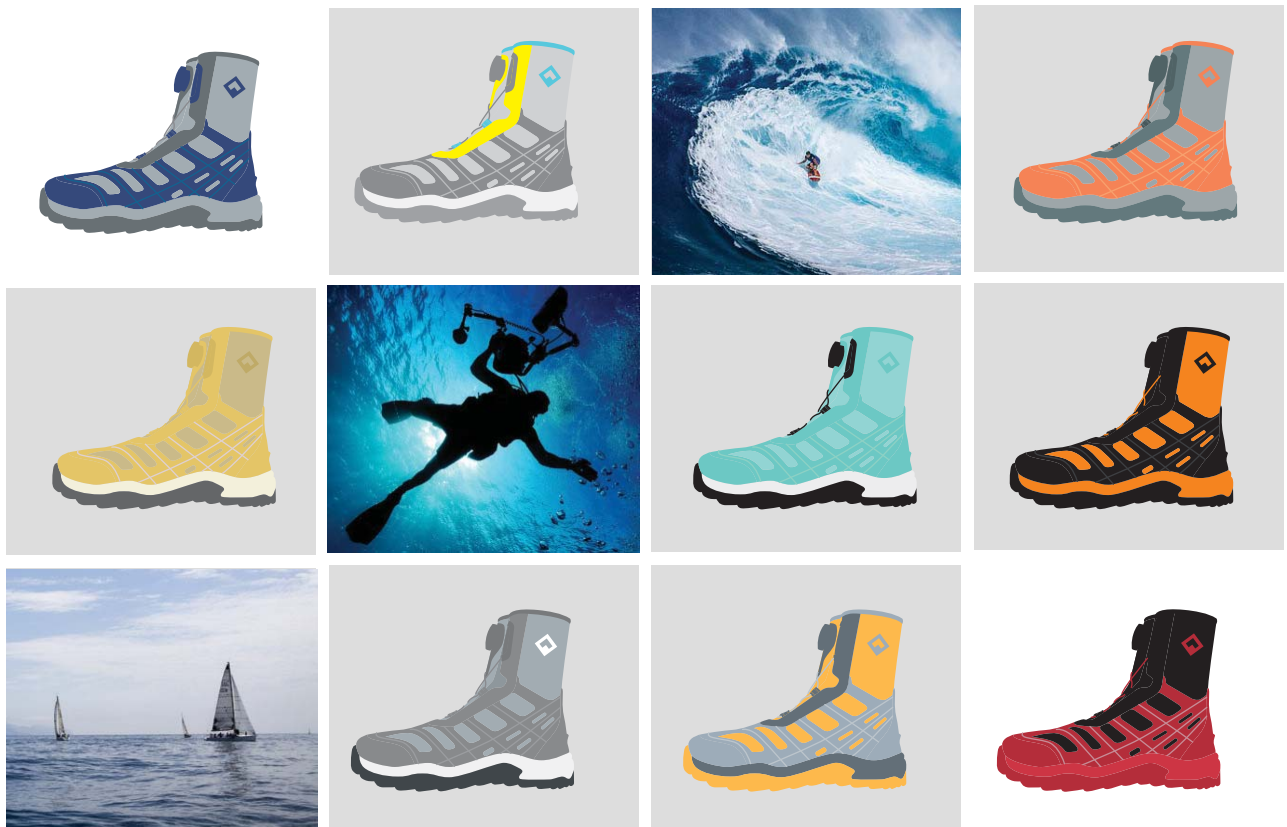
[ 부산본사 ]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관면 산단7로 99-48  
T.(051) 508-8225~8227 / F.(051) 508-4410  
[ 파주공장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산단로 63-19  
T.(031) 943-8238 / F.(031) 943-8247  
[ 서울지사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5길 24 정명빌딩 204호  
T.(02) 558-8225 / F.(02) 562-4410



# WATER SPORTS BOOTS

DIVING BOOTS, JET SKI BOOTS, YACHT BOOTS, FISHING BOO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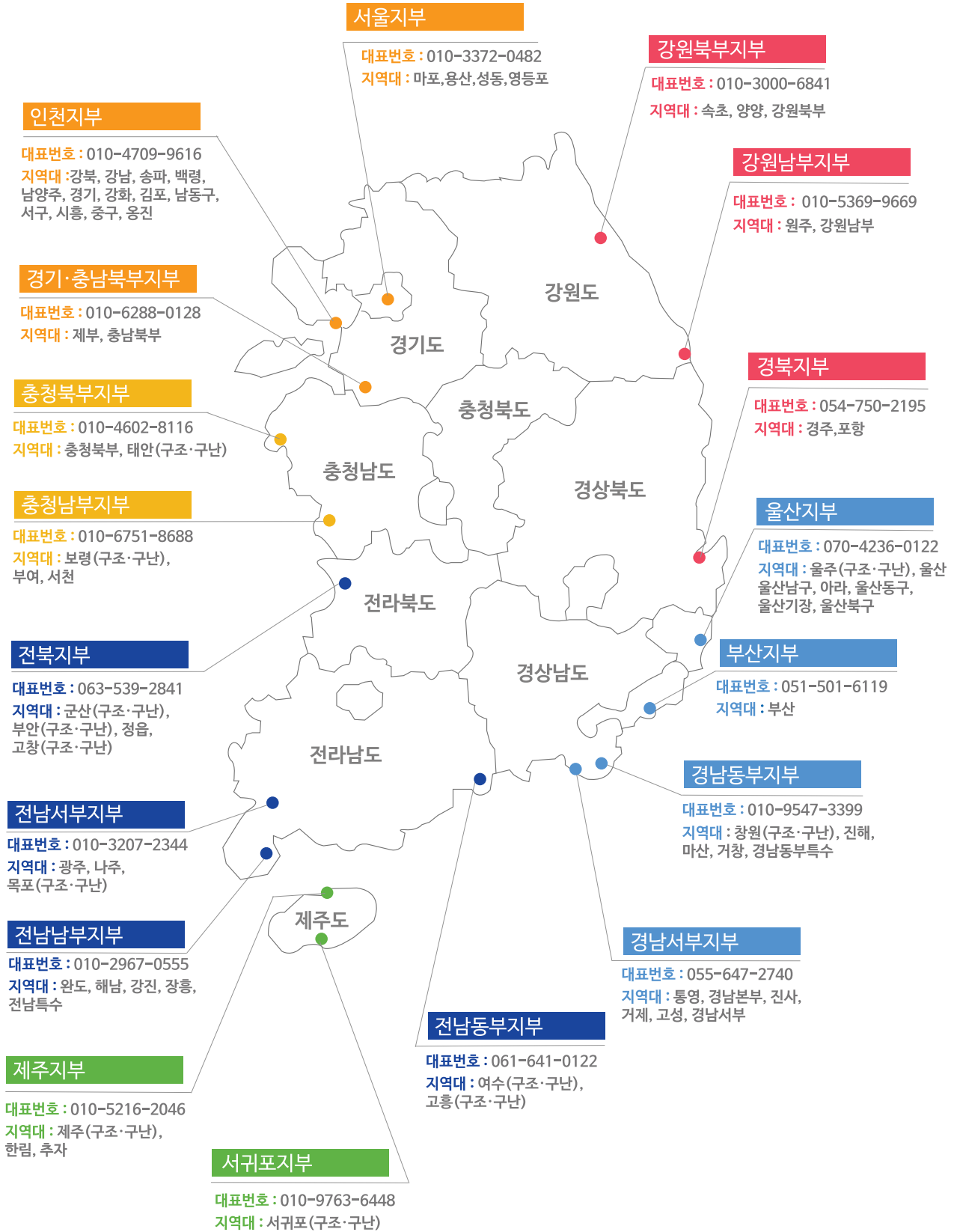
**원터치**와이어  
5mm **네오프렌** 원단사용  
부츠바닥은 원단을 사용하여 **편안함** 제공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창을 두껍게 처리  
바닥은 외부로 부터의 **충격방지**를 위한 두꺼운 몰드창



- 상 호 : 마린실업
- 대표번호 : 051-506-9388
- 팩 스 : 051-506-9387

- 주 소 :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158-38
- 모 바 일 : 010-3883-6364
- 이 메 일 : marinepark60@gmail.com

# 각 지역 지부 및 구조대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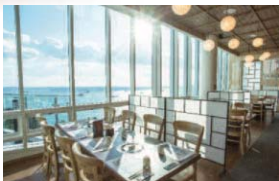


※ 지역대 : 구조대, 구난대, 봉사대, 교육지원대



MOK  
JANG  
WON

영도  
목장원



숯불구이 목장원



한식뷔페 오채담



카페 드 봄



펍 레스토랑 테라스 M



야외웨딩/연회



OVISTA HALL  
CONVENTION  
OPHILLOS GARDEN

[www.mokjangwon.co.kr](http://www.mokjangwon.co.kr) TEL.051.404.5000